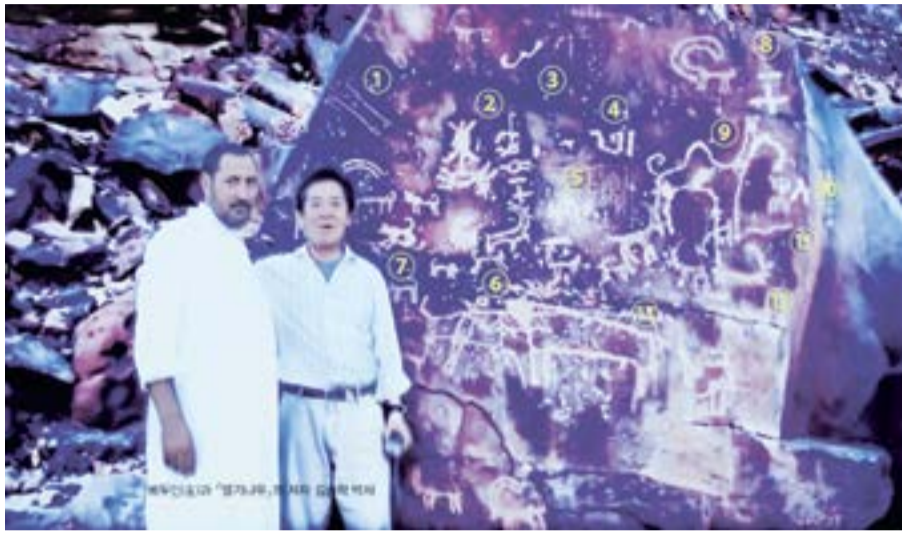


## 고조선 와당 기와에 고대 히브리어가 새겨져

삼손이 활약하던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단지와 민족이 올드네게브(Old Negev) 어를 사용하였으리라는 증거가 나왔다. 블레셋 군대와 2백여 년간 전쟁을 벌여왔던 단지와 민족은 삼손 장수를 잃자마자 가나안 소리성읍에서 출발하여 동으로 이주하였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3200년전의 일이다. 단지가 한반도 대동강변에 와서 고조선을 세웠는데, 그 당시 사용한 기와장에 새긴 꽃무늬 같은 문양이 이스라엘의 네게브와 라기스, 벤세메스, 여부스 등 남방정경에서 발견되는 올드네게브(Old Negev) 문자와 똑같은 문자로 확인되었다.

- 본지 8면에 '외당 특집' 참조



'모세의 홍해기적을 표현한 시내산 암각화에 올드네게브 문자(원시가나안어)가 새겨져 있다. 사진출처: 논문 '대동강변 출토 히브리 문양 외당과 시내산(Mt. Sinai) 암각화 문양 비교,에서'

레 코스 중 하나인 시나이반도 시내산이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미디안 땅)에 있는 라오즈산(Mt. Lawz)이 진짜 시내산(Mt. Sinai)임이 밝혀졌다. (※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두 개의 석판을 받는 것이라면 한나절로 충분하다. 그런데 40일 동안 그곳에서 머물게 된 숨겨진 이면에는 석판 양면에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 빼곡히 새겨져 있는 원시가나안어를 습득해야만 했던 최소한의 기한이 소요된 것으로 보여져 확실 먹은 노인 모세에게는 분명히 고충이었으리라 본다.) 그리하여 라오즈산(또는 아몬드산 Mt. Almond) 주변의 암각화(위의 사진 참조)에서 발견되는 문자를 일찍이 원시타무딕(Proto-Thamudic) 문자라고 명명했지만 어느 민족이 사용했는지 몰랐는데, 이제 와서 보니 그 원시타무딕 문자가 모세 시대(the period of Moses)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한 올드네게브 문자이며 또한 그들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네게브 사막(이스라엘 남쪽 지역)에 살면서 사용한 원시가나안어(Proto-Canaanite)와 동일함을 알게 되었다.

### 올드네게브 문자의 모태는 아브라함 시대에서 찾을 수 있다

브리검 영 대학교(Brigham Young University) 제임스 해리스(James R.Harris)

교수는 고대 문헌연구와 고고학적인 탐사를 통해 성서(聖書)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하나인 즉 '야훼' 이름을 올드네게브 문자(BC1200년경)보다 훨씬 앞서서 고대 시나이반도와 고대 가나안 지역의 암각화에서 발견하였다. 그리하여 올드네게브 문자의 모태로 확인된 고대 시나이반도의 문자를 '원시 시나이문자(Proto-Sinaitic)'로 또 고대 가나안 지역의 문자를 '원시 가나안문자(Proto-Canaanite)'라고 명명하였다.

기원전 2000년경 원시 가나안문자가 올드네게브 문자의 모태인 까닭은, 아마도 저 멀리 우르에서 이주해온 아브라함과 그를 따르는 집안 사람들이 가나안 남단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면서 '야훼'의 하나님을 부르짖고 문자로 표현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창 21:31). 더 나아가 노아의 장자 셈이 아브라함 150세 되는 해까지 살다가 600세에 임종한 것을 염두에 둔다면, 최초의 히브리인 아브라함이 사용한 언어는 노아홍수 이전 시대의 언어와 매우 가까웠을 것으로 짐작된다.

### 올드네게브 문자가 일부 합자(合字)로 표현되는 특징은 초성-중성-종성으로 조합된 한글과 닮았다

올드네게브(Old Negev)의 합자어(合字語)에 익숙한 단지와 민족이 동쪽으로 이

동 중 알타이산맥에서 우거할 때 북쪽 시베리아별판으로 동쪽 몽골평원 또는 중국 섬서성 가산으로 분파되어 나갔는데, 특히 중국에서 주나라를 세운 단지가(※ 주나라의 시조 '고공단보'와 고조선의 시조 '단군왕검'은 원래 이름이 히브리어로 '단'이며 아브라함의 증손자이다)는 올드네게브의 합자어 형태를 본뜬 한자어를 창제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그리고 단지의 주류가 몽고평원을 거쳐서 한반도에 정착한 지 약 2500년이 지나서 한글이 창제되었는데, 한글 또한 이스라엘의 올드네게브 합자어 형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몽고평원을 거쳐서 한반도로 유입되거나 계속해서 동으로 이동한 단지는 아메리카대륙의 원주민이 되었는데(순성태 교수의 책 『한민족의 기원』 참조), 유태주에 본부를 두고 있는 물론교는 이스라엘의 고대인들이 미국에 정착했다고 믿고 있지만, 그 고대 이스라엘 사람이 단지와 사람임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다.

### 한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의 동일한 풍습

승리재단 조희성 총재님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이스라엘(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 다섯 번째 아들 '단'이 한민족의 시조 '단군(檀君)'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의 원족(原族)이라는 여러 증거 가운데 일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 당시 양(羊)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 액(厄)을 면했다(레위기24:6)고 해서 유월절(the Passover) 풍습으로 대대로 지켜오고 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3200년 전에 이스라엘의 12민족 가운데 단민족이 이스라엘 소리 성읍에서 동쪽으로 이주하여 한반도에 와보니 양이 없으므로 양의 피 색깔과 비슷한 팔죽을 써서 동짓날에 문설주에 바르는 것으로 유월절 풍습이 변모된 것이다.\*

### 대동강변 출토 외당에 새겨진 문자는 원시 히브리어(Proto-Hebrew)다

한국의 최초 국가인 고조선은 약 3200년 전에 삼손 장수 사망 직후 이스라엘 소리 성읍에서 이주해온 단지와 민족이 세운 국가이고, 그들은 대동강 유역에 도착하여 나라를 세우면서 제일 먼저 천제단(天祭壇)을 쌓았고, 그 제단의 출입문 상단 지붕에 쌓은 기와에 원형 외당을 사용하였는데, 그 원형 수막새에 올드네게브(Old Negev) 문자를 새겨 넣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올드네게브(Old Negev) 문자가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 사용되었는지를 알 수 없었다. 심지어 오늘날 이스라엘의 유대인조차도 자신들의 선조가 되는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이 어떤 문자를 사용했는지 몰랐으며, 또한 모세시대(the period of Moses)와 사사시대(the period of judges)에도 어떤 문자를 사용했는지 알지 못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알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고대 히브리어(Ancient Hebrew)는 다윗과 솔로몬 왕조 때에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금세기에 들어서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이 기록된 십계명 석판을 건네받은 곳이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의 성지순

작지한 바위 부근에 모인 다른 선지자들과 만나 대화하고, 무함마드 자신이 예배 인물자가 되어 먼저 예배를 보았으며, 그 뒤 하늘로 승천하여 또다른 선지자들[아담, 야흐야(세례자 요한), 유수프(총리대신 요셉), 이드리스(에녹)], 하룬(대제사장 아론), 모사(이슬람나를 내린 모세)]을 첫 번째 하늘에서 여섯 번째 하늘까지 차례로 만나 대화하고, 그네들보다 더 높은 일곱 번째 하늘로 올라가 알라의 명령을 듣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그리하여 알라의 권능으로 옮겨진 '멀리 있는 사원'이라고 불리는 황금돛 '알 아크사 사원(모스크)'이 솔로몬의 성전 자리에 세워진 것이다.

이상과 같이 모리아 산은 유대교인들이나 이슬람교인들 양측에서 똑같이 성전산(聖殿山)으로 여기고 있기에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차지할 수 없고 어느 한 쪽이 양보할 수도 없는 팽팽한 구도로 조성되어 있다. 게다가 유대인과 아랍인은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자처하고 아브라함의 유일신 신앙을 이어받고 있지만, 유대교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정통성을 찾고 이슬람교는 신의 축복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계승되었다고 주장한다.

'누가 아브라함의 진정한 계승자?'는 근본 문제의 해결은 제3의 인물이 되는 아브라함의 증손자 '단'에서 찾을 수 있겠다. 단 자신이 모세의 손자 요나단을 단지의 제사장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또한 모세가 이스마엘의 후손이면서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를 장인으로 맞이한 것은 정자 혈연 관계에 의한 이스라엘 민족과 아랍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여 대립을 극복하려는 신의 한 수였다.\*

###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분쟁 해결책

팔레스타인과 관련된 중동 분쟁에는 예루살렘의 성지를 둘러싼 유대교를 신봉하는 유대인과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아랍인의 종교적인 갈등이 뿌리 깊게 작용하고 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의 성지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의 아들 이삭을 희생제물로 올리려고 했던 모리아 산이다. 이곳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로마군에 의해 성전이 파괴되고 '통곡의 벽'만 남게 된 것이다. 그런데 아랍인들은 그들의 선지자 무함마드가 '부라크(Buraq)'라고 하는 얼굴은 사람 모양으로 하고 날개 달린 말을 타고 메카에서 날아서 도착한 장소가 궁교롭게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올리려고 했던 모리아 산의 바위라는 것이다. 그리고

원편의 사진은 원시 히브리어(Proto-Hebrew)에 해당하는 올드네게브(Old Negev) 문자가 새겨진 4 종류의 외당(12지와 외당①, 꽃무늬 외당②③④⑤⑥, 단Dan의 독수리 외당⑦⑧⑨, 오엽화 외당⑩⑪⑫)이 더 있다는 것을 알고 동종(同種)의 외당을 찾아 정리한 것이다. 여기에 소개된 12점의 외당은 평양 대동강 유역에서 발굴되었으며 고조선 건립 당시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 ① 일본 테츠카야마대학 부속 박물관 소장
- ② 일본 테츠카야마대학 소장
- ③ 일본 테츠카야마대학 소장
- ④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 소장
- ⑤ 시대: 고조선, 출토지역: 평양 강남구 원암리(猿巖里), 소장기관: 동경 국립박물관 소장

- ⑥ 출토지역: 한반도 북부, 동경 국립박물관 소장
- ⑦ 일본 사이타마 대학 소장
- ⑧ 시대: 고조선, 출토지역: 평안남도 대동군(大同郡) 대동강면(大同江面) 토성리(土城里) 토성(土城), 소장기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번호: 본관(本館)-008464-003
- ⑨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 소장, 유물번호 301385-000
- ⑩ 일본 테츠카야마대학 부속 박물관 소장
- ⑪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 소장, 유물번호 301429-000
- ⑫ 시대: 고조선, 출토지역: 평양 대동강 유역, 소장기관: 국립 광주박물관, 유물번호: 본8464 (구 215)\*



##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276>

### “자신이 도를 닦는 것은 마귀 짓이다”

여러분들! 이제 그대로 이사람이 이긴자가 됐다고 했을 때 '내가 이겼나요? 하나님이 나를 이기셨지요'라고 하는 사람만 이긴 것이다. 그것이 되지 않는 사람은 이긴자가 되지 못한다. 이긴자가 되려면 아직 멀었다.

하나님이 마귀를 이긴 것이지, 마귀가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가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승리재단

에서 도를 닦는 방법은 세상에서 도를 닦는 방법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불교에서 스님들이 목탁 두드리는 것도 자기 자신이 도를 닦고, 자기 자신이 부처님한테 절을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마귀 짓이 되는 것이다. 자신이 마귀이기 때문에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장을 해야 그게 도를 닦는 것이다.\*

이기는 삶

## 성공의 열쇠는 절박함과 인내이다

만일 지금 성실하게 일하는 것밖에 내세울 것이 없다고 한탄하고 있다면 그 우직함이야말로 가장 감사해야 할 능력이라고 말하고 싶다. 지속의 힘, 지루한 일이라도 열심히 계속해 나가는 힘이야말로 인생을 보다 가치 있게 만드는 진정한 능력이기 때문이다. 그런 우직함이야말로 꿈꾸는 곳에 이르는 가장 빠른 길이 된다.

너무 빨리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가지 말아야 할 길로 들어서기도 하고, 처음에는 앞서가다 금방 지쳐버리기도 한다. 빨리 가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지는 사회이지만, 진정한 승리는 크고 원대한 목표를 갖고 우직하게 좌고우면(左顧右盼)하지 않으면서 우보만리(牛步萬里)로 끈기 있게 조금씩 나아가는 사람에게 돌아간다.

할리우드 컨셉 디자이너, 스티브 정이 '최고가 되려면 최고를 만나게 하라'에서 다음과 같이 역설하고 있다. 결핍이 나를 열정적으로 일하게 만들었다. 너무 가난해 제약이 너무 많았고, 기회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내 몸에서 '해보고 싶다', '이루고 싶다'라는 간절함이 넘쳐났다. 결핍이야말로 성장을 가져다 주는 가장 센 동력이다.

또한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는 “결핍은 욕망을 낳고 과잉은 거부를 낳는다.”라고 주장하였으며, 내과 의사 폴 투르니에는 “역경이 없으면 이를 극복하는 창조력, 문제 해결 능력은 배양될 수가 없다.”라고 하였으며, 제네바대 의대 앙드레 헤이넬 교수는 “역경이나 부족, 박탈의 경험 등이 있어야 창조력이 길러질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나무에 가위질하는 것은 나무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부모에게 야단맞지 않고 자란 아이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없다. 겨울 추위가 심할수록 다가오는 봄의 나뭇잎은 한층 푸르다. 이와 같이 사람도 역경에 단련되지 않고는 큰 인물이 될 수 없다.”

결핍을 극복하고 역경에 단련되기 위해서는 인내로써 끝까지 참고 견뎌야 한다. 재능으로도 안 된다. 위대한 재능을 가지고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지천이기 때문이다. 천재성으로도 안 된다. 교육으로도 안 된다. 세상은 머리 좋고, 교육받은 낙오자로 넘쳐난다. 오직 인내와 끈기로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뭔가 잘 안된다면 자신이 천재가 아니라고, 교육을 적게 받았다고 자책할 것이 아니라, 절박함과 인내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

어떤 사람이라도 추위, 더위, 배고픔, 목마름을 이기지 못하고, 불쾌한 일을 참고 견디는 힘이 없다면, 그는 결코 인생의 승리가 될 수 없다. 그런 사람은 결코 빛나는 명성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인내는 정신의 숨겨진 보배이다. 그것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인 것이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불행이나 빈곤, 심지어 질병까지도 필요한 것이다. 이런 것들이 없다면 인간은 곧 오만해지기 때문이다.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견디기 힘든 것은 나쁜 날씨의 연속이 아니라 오히려 구름 없는 맑은 날씨의 연속이라고 한다. 성공의 열쇠는 좋은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바로 절박함과 인내인 것이다.\*

## 정도령 5대 공약

- 1. 세계 공산주의를 없애버리겠다.
- 2. 우리나라로 태풍이 못 불어오게 하겠다.
- 3. 여름 장마를 못 지게 하겠다.
- 4. 우리나라에 풍년 들게 하겠다.
- 5. 남북전쟁 못 일어나게 하겠다.